



미 증시, 물가 지표 경계심리, 경제 재개 기대감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8일(화) 미국 증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 4월 채용공고 급증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했으나, 10일(목) 소비자물가, ECB 회의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 지속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09%, S&P500 +0.02%, 나스닥 +0.31%).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1.0%), 에너지(+0.9%), 부동산(+0.5%) 등이 강세, 유틸리티(-0.9%), 필수소비재(-0.9%), 헬스케어(-0.4%)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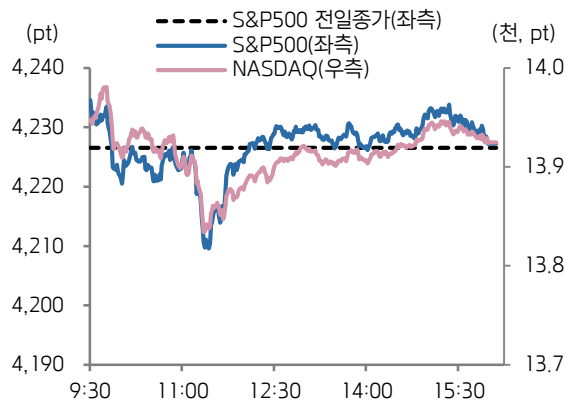
4월 채용공고는 928만건으로 전월(829만건) 및 예상치(830만건)를 모두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숙박 및 식음료(+34.9만건), 내구재 제조(+7.8만건) 등 대부분 산업군에서 급증하면서 미국 내 채용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 5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99.6으로 전월(99.8) 및 예상치(101.1)를 하회. 근로자들의 일자리 복귀 지연 등 인력 부족 사태가 중소기업체들의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는 모습.

미국 증시 평가

현재 미국은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5월 고용지표 부진이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에서 기인했다는 4월 채용공고가 재확인 시켜줬다고 판단. 6월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의 고용시장 복귀 지연을 유발했던 추가실업급여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회복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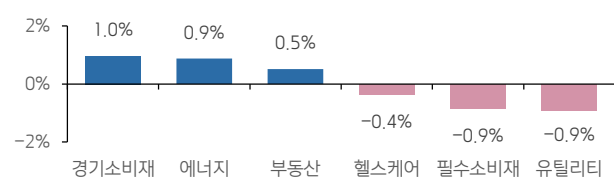
이 같은 고용시장 개선세와 더불어, 전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일본 등 65개국에 대한 여행권고 등급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코로나 이전으로의 일상 복귀 기대감을 재차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물론 아직까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물가 상승 속도,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10일(목)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가 최근까지 뚜렷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 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

S&P500 일종 차트(6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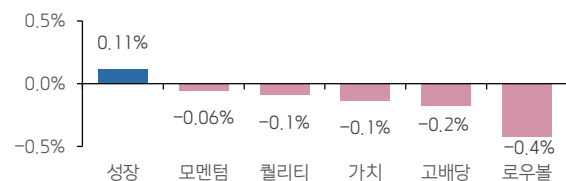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7.2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발 인플레이션 관망심리 심화에 따른 외국인 수급 유입 정체 가능성 2. 원전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성 폭증 유의 3. 10 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기관들의 포지션 급변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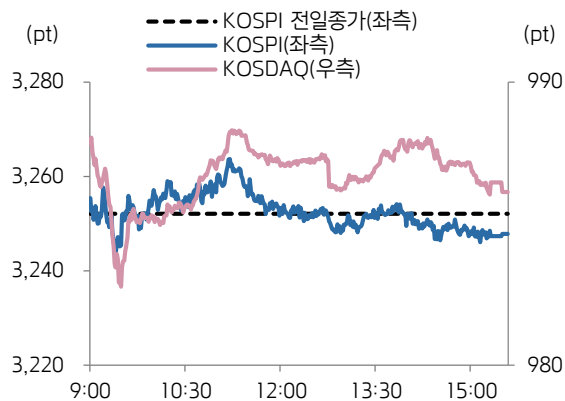
8일(화) 코스피는 원전 테마주 동반 급락에도, 미국 바이오제발 호재에 따른 제약 및 바이오 업종 강세, 경기 회복 기대감에서 기인한 산업재 업종 강세로 장 초반 전거래일에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함. 그러나 이후 미국발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속 외국인의 순매도 확대로 장중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전개됨에 따라 약보합세로 마감(코스피 -0.13%, 코스닥 +0.03%).

업종별로는 운수창고(+2.8%), 통신(+1.1%), 의약품(+1.0%) 등이 강세, 전기가스(-2.6%), 의료정밀(-1.9%), 화학(-0.8%) 등이 강세.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060억원, 447억원 순매도, 기관은 2,619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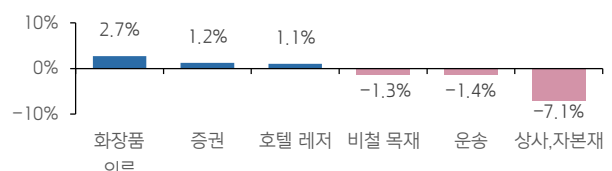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 대기심리에 영향 받아 제한적인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테마성 재료에 따라 종목간 혼재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지수 방향성에 베틀하는 성격이 약한 금융투자 위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지수 움직임이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 암호화폐 시장도 기술적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마를 찾고 있는 상황. 전 거래일 미국에서도 건강보험회사 클로버헬스(+86.8%)가 레드 토론방의 입소문을 타고 폭등세를 연출한 것도 유사한 맥락. 한국과 미국 모두 짧게는 10 일 미국 소비자물가, 길게는 차주 6 월 FOMC 까지 개별 테마주들의 주가만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존재.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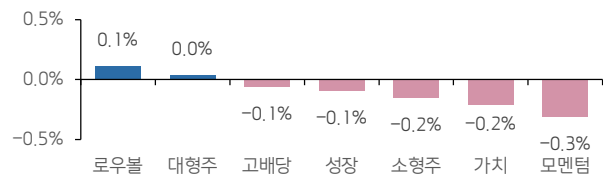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